

뉴스홈 | 최신기사

'흑진주' 윌리엄스, 오바마 당선에 '자랑스러운 미국'

송고시간 | 2008-11-06 09:18



김동한 기자

기자 페이지

'흑진주' 윌리엄스, 오바마 당선에 "자랑스러운 미국"

(서울=연합뉴스) 김동한 기자 = 여자프로테니스(WTA)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너스 윌리엄스(8위.미국)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에 출전 중인 윌리엄스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흑인 선수로는 42년만에 2000년 뮌헨 여자단식을 제패했던 윌리엄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왔다.

AFP통신은 "그러나 오바마의 승리는 아버지가 인종 차별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비너스의 입을 열게 했다"라며 6일 비너스의 소감을 전했다.

윌리엄스는 "루이지애나에서 자란 아버지는 언제나 '보이'라고 불리며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할머니는 가난한 소작농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제 비주류나 어떤 인종 출신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놀랍다. 또 자신의 배경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다.

동생 서리나(3위.미국) 역시 "마틴 루터 킹과 말콤 엑스, 앨시아 김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서 애시 역시 오늘이 있게 한 사람"이라면서 "출전 중인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이 대단히 큰 대회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국에서 그 변화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슨은 1956년 프랑스오픈 단식을 우승하며 흑인 최초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이 됐던 인물이고 1968년 US오픈 남자 단식을 제패한 애시는 이후 1970년 호주오픈, 1975년 뮌헨 등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3승을 거뒀다.

한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2008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루이스 해밀턴(영국)도 오바마의 당선에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최종 레이스에서 5위를 차지하며 시즌 챔피언에 오른 해밀턴은 "오바마의 당선 관련 뉴스를 자꾸만 봐도 질리지 않는다. 오바마에게 존경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F1 58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챔피언이 된 해밀턴은 이번 시즌 내내 다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인종 차별적인 야유와 조롱에 괴로워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반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오바마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즈는 "무릎 상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09년 초까지는 스윙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칩샷이나 퍼트 연습은 하고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있지만 폴 스위그는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을 뿐 오바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emailid@yna.co.kr

🔗 관련기사

-테니스- 윌리엄스 자매, 나란히 '승리 합창'

-F1그랑프리- 해밀턴, 역대 최연소 챔피언(종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6 09:18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니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
크는 그대로

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We Do Technology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41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4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9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청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계서류문의